

제6대 광주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 인터뷰

“지역 중기, 차 부품업체로 키워야”

“광주는 이미 자동차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00만대 생산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클린 디젤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로 커 나가는 것이야말로 광주경제의 미래를 다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2단지 부지 조기조성
먹거리 기지 만들 것
MIG 브랜드 확산 등
글로벌시장 확대 치중

창출과 감소기업 만들기, 'MIG' (Made In Gwangju) 브랜드 확산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더욱 치중하겠다는 것.

유 원장은 “2단지는 광주의 새로운 먹거리를 탐보하는 첨단 융복합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국비가 확보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열린 정부의 산하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2년 연속 지역산업진흥 최우수기관 3관왕을 달성했다. 18개 전국 테크노파크 가운데 독보적인 성과를 이뤄내며 산하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원장은 “지역 산업의 기획과 집행,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며 “부서 고유의 업무에 타 부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모든 일처리가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냈다”고 비결을 밝혔다.

이어 “새 임기에는 사내 대학 운영 등 내부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직원들이 지역의 모든 산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광주지역의 크고 작은 연구기관 50여개가 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리더’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원장은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부지의 조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동국기자 exian@kwangju.co.kr / 사진=나명주기자 mjna@

■ 물 건너간 지역자본 광주은행 인수... 향후 전망

신한금융-JB금융지주 2파전 될 듯

BS금융 지역 정서와 안맞아 가능성 낮아

세금 특례법 개정 안돼 절차 순탄치 않을 듯

광주은행 새 주인 자리는 신한금융과 JB금융지주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오후 5시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신한금융과, JB금융지주(전북은행), BS금융(부산은행) 등 3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은행 지역환수를 주장하며 인수전에 나선던 광주·전남상업은행과 광주은행우리사주조합

은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아 지역민의 소망이었던 광주은행 지역자본 인수는 물거품이 됐다.

신한은행은 막강 자본력을 앞세워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으나 초반과 달리 인수 의지가 식었다.

JB금융은 지역 정서상 반감이 적은데다 지역 정서 대변자로 나서고 있고, 자금력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신한은행과 경쟁구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초 함께 저물길 했던 우리F&I 본입찰에서 빠져 광주은행 인수전에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복병으로 등장한 BS금융은 동일 경제권인 경남은행 인수를 1순위로 하고 광주은행에 대해서도 영업기반 확대를 위해 인수전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광주·경남은행 매각 시 정부가 물어야 하는 세금이 6574억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매각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

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광주은행 매각이 4번째 실패하게 돼 현재예금보험공사 소유로 남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되며 광주은행 인수가는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막판 예상치 못했던 BS금융이 나선지만 광주은행 인수전에는 신한금융과 JB금융지주의 2파전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JB금융지주의 자본력이 미미수이고 신한금융은 노조의 반대가 심해 매각 실패라는 변수도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도 '노사상생협력유공' 시상식에서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 노사상생협력 총리 표창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지난 20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도 '노사상생협력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2008년부터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 및 일터혁신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모범기업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신보는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최근 3년간 무분규 입단률 타결, 고용창출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 등

을 통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특히, 신보는 '노사공동 종합T/F'를 구성하여 전자 전략을 재수립하였으며,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및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과제'를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여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사합의로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하여 '근로시간저축유급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고졸채용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사례 확산을 선도한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평균개인소득 13년 연속 최하위

1인 소득 1249만원

전남의 평균 개인소득이 1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역총생산은 많았지만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개인소득이 낮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64조6000억원으로 지역총소득(37조4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8.0%에 불과했다. 이는 충남(57.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총소득이 지역내총생산보다 낮다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지역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많이 했다는 뜻이다. 전남의 경우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대불산단 등 대형산단이 많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며 전남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타지역에 분사를 둔 대기업들이 전남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남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3653만원으로 울산(6330만원)과 충남(4179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지만 1인당 개인소득



은 1249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이로 인해 1인당 민간소비(1085만원)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는 지난해 지역내총생산(26조8000억원)보다 지역총소득(28조2000억원)이 많아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이 105.3%로 100을 웃돌았다. 하지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1769만원으로 대구(1566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소비도 각각 1405만원, 1256만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조달청, 개정 이래 첫 조달실적 2조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

광주지방조달청의 조달사업실적이 개정 이래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4년 1조원대 진입 이후 9년 만에 이룬 성과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난 20일 기준 조달사업실적이 2조27억원(물품 1조5066억원·시설 4961억원)으로 1조8840억원이었던 연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으며 지난해 동기실적(1조8138억원)보다 10.4%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1조7775억원으로, 전체 조달사업실적 대비 88.

8%에 달했다. 또 전년 동기실적(1조6096억원)과 비교해 10.4%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올해 지역중소기업관료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화산업인 생활도자기와 해상부유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등을 MAS(다수공급계약)신상품으로 발굴했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 통계 기준 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관료지원 실적이 317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186

억원)보다 70.4%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권수혁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조달사업실적 2조원 돌파 성과는 지역소재 각 수요기관과 업계의 조달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달성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방·공유·협업·소통의 자세로 조달행정3.0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남도교육청이 27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78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595억원)가 상위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996.89(+13.54), 코스닥지수 489.63(+1.22), 금리(국고채 3년) 2.88%, 원·달러 환율 1060.70원(-0.50)

Large advertisement for Hwangchil Country (황칠나라) featuring product boxes and store locations. Text includes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and phone number '061 864 5788'.